

전주시의회-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머리 맞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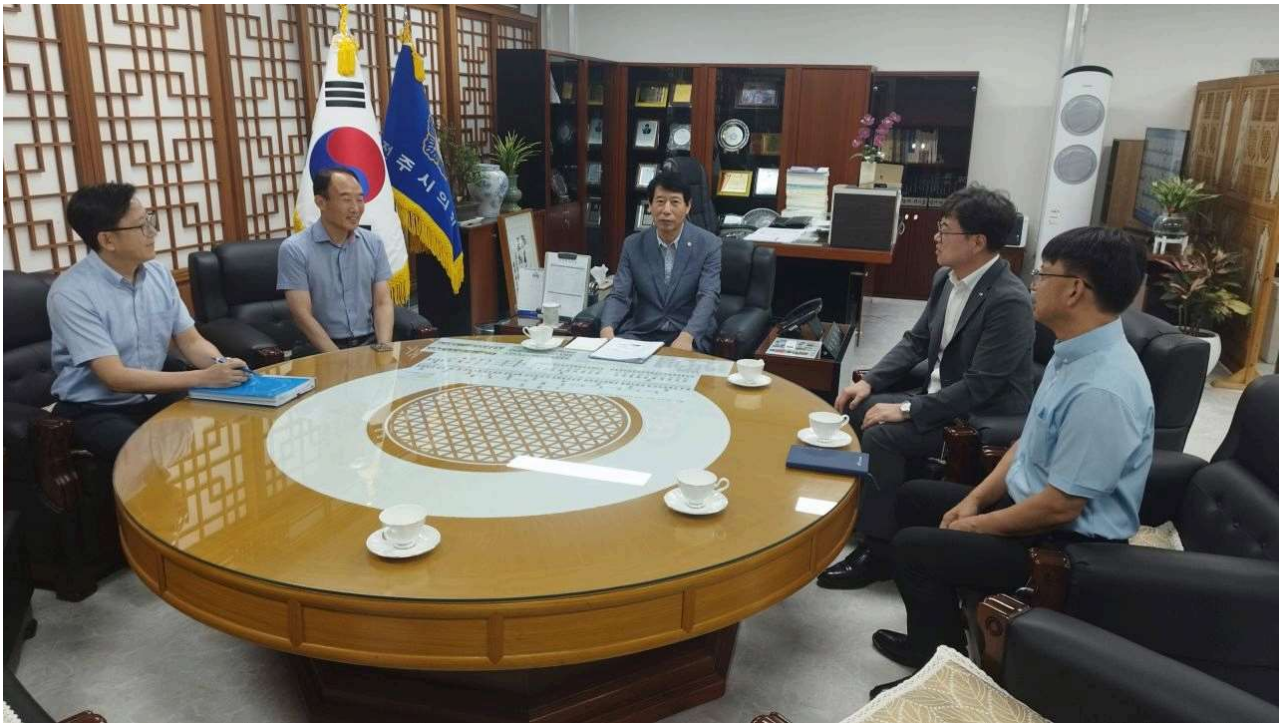
윤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9.02 17:53



전주시의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2일 전주지역의 친수환경 조성과 오염원 제거 등 각종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의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2일 전주지역의 친수환경 조성과 오염원 제거 등 각종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이광희 지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지제 친수환경 조성과 녹조 예방, 오염원 제거, 농수로 및 안전 시설 정비 등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관우 의장은 “평소 전주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각종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전주시의회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각종 시설의 개발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